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수출하는 넥센타이어

'JD Power' 고객만족도 조사 승용차 부문 2년 연속 4위

넥센타이어는 1942년 흥아고무공업(주)으로 출발해 1956년 전후 대한민국 최초로 자동차용 타이어를 생산한 기업이다.

2000년 기업이미지를 혁신하기 위해 '우성타이어'에서 지금의 '넥센타이어'로 회사명을 바꿨다. 이후 세계 타이어업계 최고 수준의 매출신장률을 기록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4년 프리미엄 타이어를 생산하는 최신 설비를 갖춘 양산 제2공장을 완공하고 중국 칭다오와 경남 창원 등에 대규모 투자로 생산공장을 건설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연간 생산 규모는 양산공장 1천900만 개, 창원공장 1천100만 개, 칭다오공장 1천만 개다.

140여 개국에 500여 달러망

2000년 연간 매출액 2천64억원에서 2016년에는 1조8천947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최대 실적을 거뒀다. 수출 부문에선 1995년 1억불탑을 수상

하고 2016년 8억불탑을 받는 등 고속 성장사를 썼다. 매출 구조는 수출 75%, 내수 25%다.

2000년 당시 8%에 불과하던 내수시장 점유율은 현재 25%를 넘어서고, 전 세계 140여 개국에 500여 달러망을 갖춘 명실상부한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글로벌 비즈니스 지의 세계 타이어 매출 순위에서 18위를 기록한 넥센타이어는 미국, 독일,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 위주로 판매법인과 지점을 설립해 나가고 있다.

세계 최대 타이어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칭다오에는 16만 평 규모의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건립해 2008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상하이를 거점으로 베이징, 광저우 같은 중국 거점 도시에 지점을 설립하는 등 중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 3월부터 경남 창원 신공장을 가동하고 약 9천억원을 투입하는 2



1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 FC와 후원 재계약 체결 2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와 투자유치 MOU 체결

단계 증설작업을 마무리했다. 창원공장은 세계 최첨단 타이어생산 공정을 적용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 타이어와 초고성능(UHP) 타이어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주로 생산한다. 가동 첫해 300만 개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 연간 1천100만 개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충했다.

창원공장에는 1천2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창원공장은 향후 단계별 증설을 통해 2천 명선까지 신규 고용을 늘릴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넥센타이어는 이에 힘입어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5차례나 선정돼 대통령 인증패를 받았다.

독일 포르세 카이엔 모델도 넥센타이어 장착

넥센타이어는 품질과 성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국내외 바이어로부터 주문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완성차 업체로부터의 신차용 타이어(OE)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일본 미쓰비시의 중형차 랜서(LANCER)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CUV 차량인 아웃랜더 스포츠(OUTLANDER SPORT)로 공급을 확대한 데 이어 이탈리아 피아트, 미국 크라이슬러와 닛산, 독일 폴크스바겐, 체코 스코다 등에도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2014 북미 국제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는 그해 3월 출시된 '올 뉴 크라이슬러 200' 세단에 넥센타이어 제품이 장착돼 세계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FCA 그룹(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의 올 뉴200-램 3500-램 프로마스터, 스페인의 세아트, 르노그룹 계열의 다치아 브랜드인 로자도커에도 넥센타이어 제품이 쓰이고 있다.

2015년에는 피아트 최초의 크로스오버형 차량인 500X와 대표 상용 밴인 듀카토, 그리고 르노의 트윙고(Twingo), 폴크스바겐의 캐디에 공급됐다. 지난해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18인치 제품이 공급됐다. 또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인 독일 포르세의 카이엔 모델이 넥센타이어 제품을 장착했다. 회사 측은 향후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제품 공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 특화 마케팅으로 고객 소통 강화

넥센타이어는 해외시장에서 해당 지역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는 등의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앞세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LA에인절스(2014년~), 텍사스 레인저스(2014~2016년), 피츠버그 파이리츠(2016년)가 그 대상이다. 포물러 드리프트와는 2016년 이후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유럽에선 2014년 이후 프로축구 3대 빅리그(프리미어·분데스리가·세리에 A) 구장 광고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최강팀 중 한 곳인 맨체스터시티 FC(맨시티)와는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 메르세데스컵 테니스 대회의 공식 스폰서(2015~2016년)로 활약하고 체코 프로 아이스하키팀을 2014년부터 후원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선 호주 축구팀인 멜버른 시티 FC를 올해부터 후원 중이다. 호주 풋볼팀인 지롱 캣츠(2013~15), 뉴질랜드 럭비팀인 치프스(2015년~)와도 후원계약을 맺었다.

작년 11월부터는 동계스포츠 2016-2017시즌을 맞아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스피드스케이팅, 스노보드·스키 빅에어(Big Air),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점프 등 4개 겨울 종목 대회를 후원하는 등 다양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가동 예정인 유럽 체코 신공장 건립을 계기로 최대 타이어 소비시장의 한 곳인 유럽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3월 미국 JD Power가 2015년형 및 2016년형 차량 소비자 2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신차용 타이어 고객만족도 조사' 승용차 부문에서 2년 연속 상위권인 4위를 차지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70여 년의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품질 좋은 타이어 생산을 향한 열정을 바탕으로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넥센타이어 창원공장 전경